

SK케미칼, SK가스 경영권 확보

형제간 계열분리 사전작업 ... 신 성장동력 투자여력 마련설도

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가 장의 매매를 통해 SK가스의 지분 전량(45.5%)을 SK케미칼에 돌연 매각한 배경을 두고 업계의 해석이 분분하다.

SK가스는 사실상 SK에너지와 한 회사처럼 움직여왔고, LPG(액화석유가스)를 수입해 판매하는 단순한 사업 형태였기 때문에 SK케미칼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계열분리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.

SK그룹을 둘러싸고 그간 사촌형제 간 계열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온 탓에 SK가스의 지분 매각을 계열분리의 사전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.

SK그룹의 계열분리 시나리오상 SK에너지, SK텔레콤, SK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최태원-재원 형제 영역과 SKC, SK케미칼, SK네트웍스 등을 묶은 최신원-창원 형제 영역으로 결국 나누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핵심이다.

SK그룹의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최신원 SKC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사촌형이다.

한 시장 관계자는 “회사 규모를 볼 때 최신원 회장이 최태원 회장이 거느리는 회사보다 무게감이 떨어지는 만큼 안정된 현금 공급원인 SK가스를 최신원 회장 측에 넘겨 양측의 균형을 맞춰 계열분리 환경을 만드는 것 같다”고 말했다.

SK가스의 매각이 계열분리에 역행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.

SK그룹 계열분리의 시나리오상 최신원 회장은 자금 여력이 있다면 SK주가 보유한 SKC의 지분(42.5%)을 한 주라도 더 사와야 하는데 엉뚱하게 SK가스를 1841억원이나 주고 사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.

SK그룹 관계자는 “SK주로서는 사업이 정체된 SK가스를 매각해 신 성장동력에 투자할 수 있고 한창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K케미칼은 안정된 현금창출원이 절실하다”고 설명했다.

SK케미칼은 매출의 20%를 차지하는 PET(Polyethylene Terephthalate) 사업을 급격히 축소하는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소재와 생명과학부문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.

신규사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지만 당장은 큰 수익원이 되지 못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복이 크지 않고 매출이 안정적인 SK가스를 사들였다는 것이 계열분리에 역행한다는 분석의 논리다.

SK그룹 관계자는 “SKC와 SK케미칼은 지금도 어느 정도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”며 “계열분리를 할 면 SK라는 상표를 쓰지 못해 잃게될 무형의 이익이 너무 커 계열분리를 할 이유가 없다”고 일축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
<화학저널 2010/12/28>